탑사 계묘년 산신재 · 이웃사랑 백미 나눔

㈜복성산업개발, 진안군에 백미 3000kg 기탁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 전통의식으로 집전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탑사가 계묘년 봄 마이산 산신재를 봉행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탑사(주지 진성)가 계묘년 봄 마이산 산신재를 봉행했다. 4월 28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마이산 산신재는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들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산신재에 앞서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태원산업개발, ㈜태원에서 후원한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대(3,000kg 9백만원 상당)을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박금태 회장과 함께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 자비의 백미를 붓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이산 탑사 산신재와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은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부회장 지화장 도홍 스님, 익산 삼불암 법정 스님, 태봉사 법진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과 전춘성 진안군수,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전문순 부회장, 이경희 (주)혁신금속 대표, 윤복길 마이산탑사 신도회장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어른께서 1885년부터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산신재를 봉행하고 기금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한다"며 " 뜻 깊은 산신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 어르신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이러한 백미 나눔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진안 군민들에게 이렇게 쌀 전달식도 하면서 산신기도를 봉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자비의 쌀을 기탁해 주신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이어진 마이산 탑사 봄맞이 산신재에서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산신기도, 산신불공, 산신청, 신중작법, 39위 신장법문, 천지기도가 진행됐다.

익산 관음사, 대웅전 준공 · 점안법회 봉행

5월 2일 보물 목조보살 입상
보호각 낙성도 함께 진행돼


익산 관음사 보물 1842호 목조보살입상 보호각(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식이 봉행됐다.

익산 관음사 보물 1842호 목조보살입상 보호각(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식이 봉행됐다.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는 5월 2일 새로 준공된 대웅전 앞 마당에서 준공식 및 석가모니불, 보현보살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석가모니불과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점안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집전하여 여법하게 봉행됐다.

준공식에서는 명종 5타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보현행원, 내빈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영상시청, 감사패 증정, 법어, 축사, 축가 축하공연, 발원문 낭독, 테이프커팅, 사홍서원, 대웅전 현판 제막이 진행됐다.

금산사 불사도감 성우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이 보물 1842호 지정되고 故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사재 출연과 불자들의 모연을 통해 주변의 토지 750평을 매입하여 대웅전(보호각) 준공식을 갖게 됐다고 보고했다.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불사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속에 불사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자들의 편의시설도 마련하고 포교에 앞장서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관음사가 익산불교의 중심이 되고 신도분들이 편안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점안식의 의미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는 불이사상을 생각하는 기회"라며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전북불교원탁회의 본부장 평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각진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前국회의원, 최종오 익산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등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본찰 금산사, 미륵강탄재 · 미륵십선계 수계법회

5월 1일 봉행…도영 스님 법문


조계종17교구 김제 금산사가 제1257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신앙의 본찰 조계종17교구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제1257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월 1일 금산사 미륵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미륵강탄재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종회의원 화평 스님, 각진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하유호 금산사 신도회 부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한 불자 500여명이 동참했다.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거대한 미륵불을 만든 후 혜공왕 2년(766)에 연못을 참숯으로 메우고 미륵전을 건립한 5월 1일을 미륵강탄일로 정하고 매년 7일간 미륵강탄재를 봉행해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금산사는 우리나라 미륵사상의 본찰로서의 사격을 바로 세우고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전국에 미륵십선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미륵강탄재에 동참한 불자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보시와 계행, 자비심으로 수행정진해 미륵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는 도솔천에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륵강탄재 후에는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전계아사리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유나 월강일원 스님, 응묵 스님의 인례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도영 대종사는 미륵십선계목을 상세하게 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며 "수계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충만한 안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수계제자들은 믿음과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

전주역 분수대, 미륵사지 동탑
'전주한지'로 모형 제작


전북봉축위는 4월 29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알리고 전북불교의 발전과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원탑 점등법회가 봉행됐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4월 29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북부처님 오신날 봉축기원탑 점등식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이라는 주제로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염송문 낭독, 대회사, 봉축사, 축사, 축가, 점등선언, 발원문 낭독, 탑돌이,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으로 봉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북봉축위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북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한 봉축기원탑을 선보였다.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1/5로 축소한 봉축 기원탑은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지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진성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지구환경을 돌보지 못한 참회의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사암聯, 봉축탑 점등법회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기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창원특례시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법회가 봉행됐다. 창원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안, 성주사 주지)는 4월 27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성주사 법안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세심사 호정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진해 천웅사 성우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안국사 성오 스님, 길상사 월서 스님을 비롯한 창원지역 스님들과 홍남표 창원시장, 김이근 시의회 의장, 경찰불자회, 경남포교사단 등 각급 기관장들과 신행단체 회원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 점등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음성공양, 내빈소개, 점등사, 축사, 축원, 점등, 정근(탑돌이), 사홍서원,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聯, 태화강 연등축제 봉축 점등식

울주 간월사지 남북삼층석탑 모델 봉축탑 점등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태화강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4월 28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봉축탑 점등식은 울산 신흥사 인경스님의 사회와 신흥사 약수암 감원 진원 스님의 집전으로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봉행사, 봉축사, 축사, 축가(봉축연합합창단), 봉축점등식, 사홍서원, 내빈 차공양,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해남사 혜원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지심인당 선덕 정사,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여여선원 효암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신흥사 인경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화봉선원 기탁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을 비롯한 울산 지역의 사찰 스님들과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 국회의힘 당대표,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김기환 울산시의회의장, 천창수 울산교육감, 서동욱 남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59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불교와 유교의 합동추모재가 밀양 표충사에서 열렸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29일 표충사 사당에서 제559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불교와 유교의 합동추모제 형식으로 봉행된 이날 춘계향사는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 불교제향 종사영반, 내외빈 소개, 헌다, 헌화, 유교제향 석전의례,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표충사 진각 스님),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충사 스님들의 종사영반과 헌다, 헌향의 불교제향 의식에 이어 김성규 밀양부시장을 초헌관으로 한 유교제향 석전의례가 봉행됐다.

봉원사 지태 스님은 추모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면서 불교의 계율과 충돌하면서 개차법을 통해 전쟁에 참여했다"며 "이러한 스님들의 구국정신을 되살려 이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불교사암聯, 봉축 점등식



전북 정읍사암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내장사 주지)는 5월 1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정읍 연지아트홀 로터리에 불을 밝힌 정읍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불국사 석가탑을 모형으로 제작돼 부처님오신날까지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게 된다.

이계숙 불자의 사회로 진행된 점등식은 아랑고고장구 팀의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봉축사, 축사, 봉축시 낭독, 장학금 전달, 공로패 전달, 음성공양, 사홍서원,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은 온천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뒤덮인 신록의 계절이며 희망찬 계절에 인천의 대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라며 "점등식을 계기로 모든 불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